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夫 亨 娃

2011 年 8 月

제주지역초등학생의개인친구가족특성이문제행동에 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夫
亨
娃

2
0
1
1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夫 亨 娃

2011 年 8 月

A Study on the Effect of Individual, Friends
and Family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ju on Problematic Behavior

Boo, Hyeong Joo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1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제 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 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자기통제력	6
1. 자기통제력의 개념	6
2.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중독 관련 선행연구	8
3. 자기통제력과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	10
제2절 친구지향성	11
1. 친구지향성의 개념	11
2. 인터넷 중독과 친구지향성 관련 선행연구	12
3. 학교폭력과 친구지향성 관련 선행연구	13
제3절 부모양육태도	15
1.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15
2.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15
3.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 관련 선행연구	18
4. 부모양육태도와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	19
제4절 문제행동	20
1. 인터넷 중독	20

2. 학교폭력가해경험	27
제 3장 모형설정 및 조사개요	40
제1절 연구모형	40
제2절 가설설정	40
제3절 조사개요	41
제4절 측정변수의 신뢰도 측정	44
제5절 자료분석방법	45
제 4장 실증분석 결과	46
제1절 표본자료의 특성	46
1. 인구통계적 특성	46
2. 각 변인별 기술통계	47
3. 인터넷 이용관련 특성	48
제2절 응답자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50
1. 응답자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차이	50
2. 응답자특성에 따른 폭력가해경험차이	52
제3절 변인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55
1. 자기통제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55
2. 친구지향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56

3.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56
4. 가정불화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56
5. 자기통제력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7
6. 친구지향성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7
7.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7
8. 가정불화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8
제4절 변인에 따른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	58
1.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인터넷 중독 수준에 미치는 영향	58
2.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폭력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59
제5절 분석결과함의 및 정책적 제언	60
제 6장 결론	64
참고문헌	66
ABSTRACT	70
부록(설문지)	72

<표 차례>

<표 III-1> 각 조사도구의 신뢰도	44
<표 IV-1> 응답자 일반적 특성	46
<표 IV-2> 각 변인별 기술통계 결과	48
<표 IV-3> 인터넷 이용관련 특성	49
<표 IV-4>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50
<표 IV-5> 학년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50
<표 IV-6> 가족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51
<표 IV-7> 아버지 학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51
<표 IV-8> 어머니 학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52
<표 IV-9> 부모님 직장 여부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52
<표 IV-10> 성별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3
<표 IV-11> 학년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3
<표 IV-12> 가족형태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4
<표 IV-13> 아버지 학력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4
<표 IV-14> 어머니 학력에 따른 폭력가해 차이	55
<표 IV-15> 부모님 직장 여부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5
<표 IV-16> 자기 통제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56
<표 IV-17> 친구 지향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56
<표 IV-18> 부모양육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56

<표 IV-19> 가정불화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57
<표 IV-20> 자기 통제력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7
<표 IV-21> 친구 지향성에 따른 인터넷 폭력경험 차이	57
<표 IV-22> 부모양육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8
<표 IV-23> 가정불화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58
<표 IV-24>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회귀분석	59
<표 IV-25> 폭력가해경험에 대한 회귀분석	59
<표 IV-26> 가설검증결과	61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 체계	5
[그림 II-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16
[그림 II-2] Schaefer의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	17
[그림 III-1] 연구모형	40

〈국문초록〉

제주지역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 형 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전공

지도교수 남진열

본 연구는 제주지역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함께 예방 또는 치료·교정을 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그 결과 자살이나 중도탈락 등의 부적응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청소년 문제행동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고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대처방안이 비현실적이고 일회성 또는 주장적인 외침에 그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또래관계가 중요시되는 시기이므로 그들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서로의 보살핌과, 지원, 용기 같은 것을 단시일 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또한 연령적으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급격한 시기이며 발달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불안, 초조, 혼돈, 긴장, 갈등, 정체감의 혼미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향 및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복지적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 및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성별은 인터넷 중독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년과 가족형태, 아버지학력수준, 어머니 학력수준, 부모의 직장여부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수준은 성별과 학년, 가족형태, 아버지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 부모의 직장여부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는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 등 모든 변인이 인터넷 중독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폭력가해 경험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는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가정불화 등 각각의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 통제력과 가정불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 통제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가해경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 가해 행동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에 관한 관계를 알아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치료 및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들의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한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면접조사나 행동관찰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 문제행동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11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8,989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0.2%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9~24세)는 10,143천명으로 1.4% 감소하였다. 총인구 중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0.7%로 1978년 36.9%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11).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감소한 출생아수의 영향과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청소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는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증가뿐만 아니라 부부와 개인의 노후 안정에 대한 욕구 증가 등 여러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와 기혼여성의 보육문제는 중요한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대한 정책에는 관심이 미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함께 예방 또는 치료·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자살이나 중도탈락 등의 부적응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청소년 문제행동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고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대처방안이 비현실적이고 일회성 또는 주장적인 외침에 그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에게도 문제행동들이 발생을 하며, 특히 인터넷 사용이 높아짐에 따라 등교거부나 결석이 잦아지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가정에서도 가족관의 대화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박영희, 2002). 초등학교 시기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또래관계가 중요시되는 시기이므로 그들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서로의 보살핌과 지원, 용기 같은 것을 단시일 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또한 연령적으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급격한 시기이며 발달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불안, 초조, 혼돈, 긴장, 갈등, 정체감의 혼미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향 및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복지적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 및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구본용 외, 1997). 실제로 최근 청소년문제행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9)에서 발표한 『2009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이 2004년도 92,976명(3.6%), 2005년 86,014(3.6%), 2006년 92,643(3.9%), 2007년 116,135(4.6%), 2008년 133,072(4.9)로 2004년과 2005년에 총 범죄대비 3.6%까지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는 4.9%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6년간 전체 청소년범죄에서 19세 소년의 범죄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16세 소년의 범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16세 소년의 범죄가 전체 청소년 범죄의 22.2%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 지역 내 아동·청소년 범죄현황은 2007년 16건, 2008년 26건, 2009년 34건으로 3년간 112%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매년 아동·청소년 범죄 수는 증가하고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연령수준도 낮아지고 있으며 동기면에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 측면과 개인의 심리, 생물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고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사회, 가정 등의 영향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적 요인이 청소년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최충욱, 1993)

즉,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집단으로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볼 수 있다. 인간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자아개념, 사회적 태도, 정서적 통제 및 기타 행동의 습관을 조성하는 기초적 훈련을 배우는 것이며 부모-자녀와의 관계, 가정 분위기 등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이은아, 정혜경, 2000:2).

한편,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특히 자아존중감, 충동성, 반사회성, 우울증, 불안감 등의 인성특성이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윤정, 2000). 또한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으로 보아 자아개념이 성숙하는 시기이며 심리적 자아발전의 중요한 단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이며 개인의 성격발달과 환경적응 및 긍정적 자아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사회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권미숙, 2007).

이에 본 연구는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 가해 행동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며,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공간적 범위는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초등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의집, 학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째, 내용적 범위는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분석 틀을 구성하고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 특성과 문제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변인 간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으로 제주도내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 집단을 선정하였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문제행동들이 발생하며, 인터넷 사용이 높아짐에 따라 등교거부나 결석이 잦아지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가정에서도 가족과의 대화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연령적으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급격한 시기임으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폭력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문헌연구를 토대로 분석의 틀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도 내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의 실증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패키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과 T-검정, 분산분석(ANOVA),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체계

연구체계는 <그림 I-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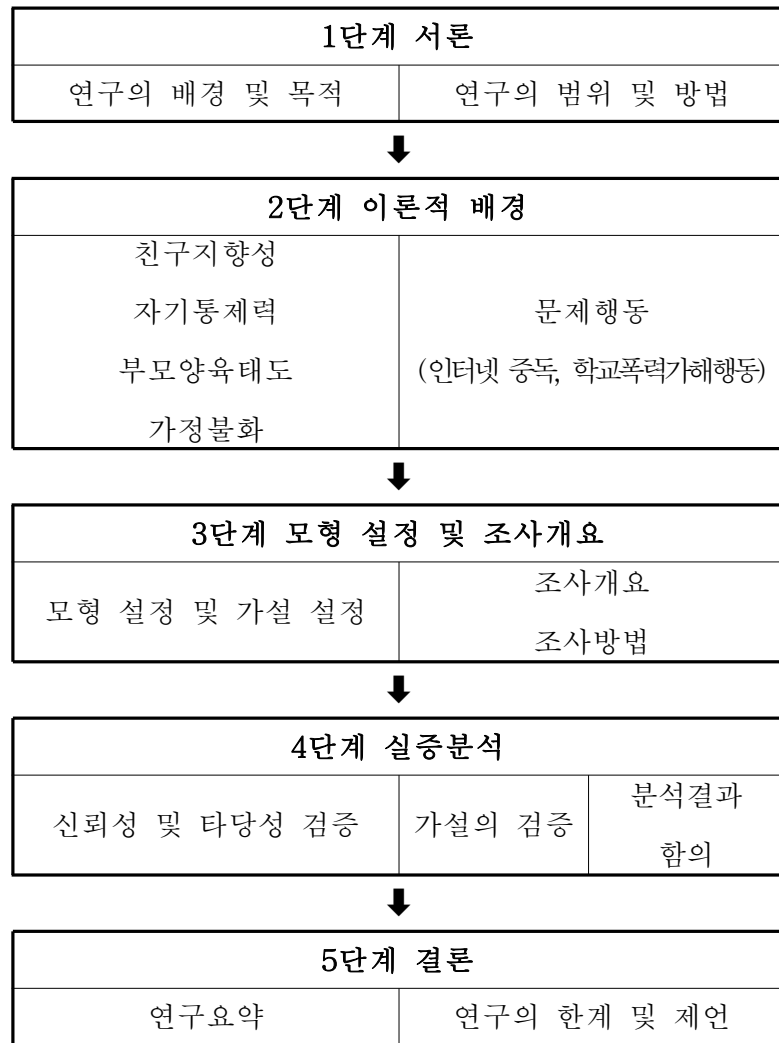
제 1단계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단계에서는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 초등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및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가해경험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 3단계에서는 제 2단계에서 연구된 이론을 바탕으로 모형 및 가설 설정을 구성하였다.

제 4단계에서는 실증분석으로 연구모형에 따라 설정된 가설을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해석하였으며,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가설의 검증, 분석 결과의 함의로 이루어진다.

제 5단계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림 I -1 연구 체계>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자기통제력

1. 자기 통제력의 개념

자기 통제력(Self-control)은 자신의 인지나 감정,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김지은, 1998). 다시말해 외부의 지시나 감독 없이도 사회적,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Patterson과 Mischel(1975)은 자기 통제를 반복적인 작업에서 주의를 분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홍성권, 2005 재인용), Gottfredson과 Hirschi(1990)은 자기 통제력을 ‘사람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범죄적 행위를 회피하는 차등적 경향’이라고 정의하고, 범죄나 비행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으나 그것의 장기적인 손해를 고려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김두섭·민수홍, 1996 재인용).

Barratt(1983)은 일반적으로 충동적인 성격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며, 모험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반응은 빠르지만 틀린 반응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조해연, 2001 재인용).

오늘날과 같은 성취 지향적인 사회에서 미래의 성취를 위해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는 일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기 통제력은 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공격성, 정서, 도덕성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특히 충동 조절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 관계, 사회적응능력의 미숙과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김현숙, 1998), 충동적인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약물남용과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두성·민수홍, 1996). 또한 Logue(1995)는 자기통제의 실패 때문에 거식증이나 과식 등의 섭식행동, 약물중독, 성행동, 운동이나 교육장면에서의 부정행위, 도박, 절도 등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계원, 2001 재인용).

또한 자기 통제력이 약한 경우에는 충동적이고 문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거절을 잘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 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좌절이나 실패를 보상받기 위해, 혹은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문제행동서클에 가입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김지은, 1998).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음이 병적 도박과 같은 성질을 지니며, 이러한 통제의 실패가 알코올 중독이나 병적 도박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충동조절 장애라고 주장하였다(홍성권, 2005 재인용). 충동조절 장애의 필수증상은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 욕구,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DSM-IV의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충동조절장애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장애에 있어서 개인들은 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긴장감이나 각성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느끼고 행위를 할 때 기쁨이나 충족감, 안도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행위 후에 후회, 자기비난, 죄책감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가상공간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자기 통제력과 가상공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가상공간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이다.

Logue(1995)는 자기통제에 대한 정의를 선택의 상황으로 정리하여 자기통제를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반대의 개념으로 충동성(impulsiveness), 즉 지연된 큰 결과보다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이계원, 2001 재인용).

자기 통제에 관련된 선택상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연시간이 다르지만 결과로 인한 보상의 크기는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연시간이 짧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연시간이 같고 그 결과로 인한 보상의 크기가 다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보상이 보다 큰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제는 자기통제적인 선택이 관여하는 세 번째 경우이다. 이때는 지연시간과 보상의 크기가 둘 다 다른데, 지연시간이 짧은 경우 작은 보상이 얻게 되고 오랜 지연시간 후에는 커다란 보상이 있는 경우이다. 이 때, 커다란 보상을 기다리지 못하고 작은 보상을 받고 마는 것이 충동성이라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자기 통제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비슷한 용어로 만족 지연과 즉각적 만족이라는 개념이 있다(이계원, 2001).

김남성(1995)과 김현숙(1998)은 자기 통제력을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이것은 행위자가 직접적인 외적 영향이 없는 조건화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행동통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성수(199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인지 능력이나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공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겪게 되어 그러한 부적응 상황을 벗어나고 즉흥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문제행동에 가담하게 되기가 쉬워진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통제력에 의해 문제행동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연령, 성별, 기회구조 등의 영향을 받는 개연성의 문제이다(김두섭·민수홍, 1996). 즉,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범죄나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남현미, 1999).

2. 자기 통제력과 인터넷 중독 관련 선행연구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기 통제력이 언급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충동조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에 지나치게 사이버 공간에 몰입할 경우, 자기조절 능력이 약화되

어 충동적으로 되거나, 사회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도덕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Young, 1996).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자기통제력 상실과 관련하여 인터넷의 이용 양태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자기 통제력과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가상공간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통제력은 인터넷 이용 뿐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개인 특성이다. 낮은 자기 통제력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도 보다 중독적인 성향을 띠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가상공간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은 이미 중독적인 사용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상공간에 대해서 사용량이나 정도를 제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기 통제력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으로 이어지는 한편, 가상공간의 중독적 사용은 가상공간에 대한 특정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이시형, 2000).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현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적절한 노력을 하는 반면,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기다리거나 오랜 시간을 요하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이를 가상공간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이계원, 2001).

자기 통제력이 낮은 학생은 학교에서도 성공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많이 겪게 되며 이러한 학생들은 부적응 상황을 벗어나고, 즉흥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문제행동에 가담하기 쉬워진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장래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므로 인터넷 중독으로 빠지기 쉽고, 즉각적인 만족에 계속 집착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상공간의 중독적 사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중독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통제 상실(loss of control)’은 중독 현상이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를 근거로, 인터넷 중독과 자기 통제력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인터넷 중독과 자기 통제력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원영(1998)은 웹서핑을 하다가 찾아온 사람과 사이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중독성과 중독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들을 탐색한 결과,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낮은 자기 통제력이 큰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

람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강화물의 영향력을 벗어나 현실생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한번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현실생활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터넷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현숙(1998)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능력의 미숙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김남숙(2002)은 인터넷 중독과 자기 통제력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 통제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았다고 하였다. 조해연(2001)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과 자기 통제력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낮아짐을 말한다. 김선영(2005)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현실생활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인터넷의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응을 경험하면서도 인터넷 중독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기 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자기 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3. 자기 통제력과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다. 그런데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송명자, 1996). 따라서 자기 통제력은 청소년기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게 자기 통제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고 있다.

Gottfredson and Hirschi(1990)는 자기 통제력으로 청소년 범죄나 비행을 예측할 수 있었고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기 통제력은 평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범죄나 범죄유사행위까지도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최정희, 2010 재인용).

민수홍(1996)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 통제력과 폭력범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 통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낮아진 걸로 확인되었다. 김현숙(1998)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통제력과 청소년의 건강행위 및 일탈행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냈고, 사회적응능력의 미숙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자주 겪으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광도(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 자녀의 폭력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 자녀의 폭력 비행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녀의 자기 통제력이 강할수록, 폭력 비행을 덜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기성(2007)은 가족구조 및 가족기능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 비행과 범 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패싸움, 그리고 절도행위와 같은 비행은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폭력가해행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친구지향성

1. 친구지향성의 개념

청소년기에는 그 이전의 발달시기에 비해 친구의 수가 더욱 많아지며, 개인 시간의 반 이상을 친구들과 보내는 반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청소년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가족의 영향력은 친구에 비해 약해지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나 가족보다 친구 및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비해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더 많은 사고와 감정을 공유하고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통해 항상 긍정

적인 영향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하도록 동조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실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룬 많은 연구(김동일, 1993; 김준호·김은경 1995; 김지은, 1998; 민수홍, 1996; 오미경, 1998; 정유미·김득성, 1998)에서 문제행동에 가장 실제적이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친구집단의 문제행동 성향 등의 친구관련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친구의 수가 많고 그들에게 친밀함을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며, 교우 관계가 건전하고 비행성향의 친구들이 적을수록 문제행동이 적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김동일, 1993; 오미경, 1998; 전병제, 1991; 정유미·김득성, 1998).

친구관련 특성 중에서 친구지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여러 연구들(김동일, 1993; 김준호, 1993; 김준호·김은경, 1995; 오미경, 1998; 전병제, 1991; Pruitt & Kingery, 1991)에서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어떤 성향의 친구와 사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런 친구들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비행성향을 가진 친구들과 자주 접할수록 그들의 가치와 사고방식, 행동유형을 내면화시키고 문제행동 관련기술을 배우게 되지만, 이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가 그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생각하고 가치를 긍정적으로 내면화해야만 동일행동에 가담하고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행동을 유발시키지는 않지만, 그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가치관이나 행동방식을 내면화하게 될 경우 자신도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될 기회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남현미, 1999).

2. 인터넷 중독과 친구지향성 관련 선행연구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인프라의 구축과

발전을 가져 오면서, 청소년의 생활과 친구관계 양상도 과거와 달리 변화하여 과거의 친구 교제가 만나서 어울리고 대화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남윤주, 2003).

소병권(2005)은 인터넷의 상호 작용성, 탈 대중성, 비 동시성이라는 특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놓인 사회적 상황에서 힘들었던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고, 또한 그것이 가상공간을 통해 새로운 집단을 만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다른 어떤 용도보다도 자기 또래들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후에 실생활 친구와의 만남횟수에 대한 결과는 중, 하 집단에서는 특이한 변화가 없지만 상 집단 학생들은 실생활 친구와의 만남 횟수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서주현(2001)은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일상생활의 친구와 통신상의 친구로 나누어 인터넷 중독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은 집단은 일상생활에서의 친구관계의 만족도는 낮은 반면, 통신 생활상의 친구 관계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진중순(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후, 직접 만나는 친구와 우정관계를 유지하는 반응이 높았지만, 이용 경력이 많을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결과가 있었고, 서미아(200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인터넷 사용이 적절할 경우에는 실생활 친구와 적당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만, 그 사용이 지나칠 경우에는 실생활 친구관계도 멀어지고 친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인터넷 사용은 또래집단의 친근감의 매개체이지만 중독또래집단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또래집단에서 내에 소외감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3. 학교폭력과 친구지향성 관련 선행연구

청소년기에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형성하는 시기로 사회화

의 중요한 모체가 친구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친구집단은 그들 또래 친구로 구성되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친구집단 내에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문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와 유사한 비행과 연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Bandura(1973)의 사회학습이론에서 공격이란 다른 형태의 사회적 행동처럼 자극, 강화 및 인지적 통제 하에 있는 학습된 행위로 이에 근거해 볼 때 일반적으로 폭력을 관찰하거나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이며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폭력적인 행동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사회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으며(Bjorkquist, et. al, 1982), 그 외 많은 연구들은 비행 친구와의 접촉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Lee & Kim, 2003; Barkin, Kreiter, & Durant, 2001, 김진호, 2009 재인용).

전병제(1991)는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로서 비행성, 또래의 친밀도가 가장 강한 설명력을 지닌다고 제시하였다. 가정이나 학교 혹은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 낙인을 받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나쁜 친구들과 사귀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으로 나아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으며, 역으로 낙인을 받은 청소년들일지라도 좋은 친구와 사귀게 되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유사한 또래와의 집단을 형성할 경우 조직 내의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사회적 지지, 원천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사고, 행동, 감정 등을 교환하면서 긍정적 환류체계를 통하여 자유와 개방성, 상호적 지지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Fraser(1996)은 청소년의 문제 집단 관계연구에서 폭력조직 가입여부와 폭력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교제하고 있는지가 학교폭력 유발 위험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김진호, 2009 재인용).

제3절 부모양육태도

1. 부모양육태도 개념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말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에 의해서 그들의 자아가 형성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생을 통해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소년 시기의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Fishbei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의 반응 양식이라고 정의하였고(최혜진, 2010 재인용), 김병임(1992)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언행, 표정, 마음쓰임 등 포괄적인 부모의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성격, 행동,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간 연구하여 양육태도를 자율-통제와 애정-적대를 축으로 하는 가설적 원형모형을 제시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근거로 국내의 경우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차원으로 분류하여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2. 부모양육태도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성별,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교육수

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Symonds(1949)이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수용은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거부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은 익애형¹⁾과 복종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림 II-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첫째, 수용형의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보호해서 자녀를 대개 사회적 성숙이 늦어지고, 의존성이 강해서 활발한 교우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고립되기 쉽다. 또한 책임감이 약하고 일의 뒤처리를 하지 못하며 때로는 분열적 성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둘째, 거부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부하고 무관심, 적대 감정의 표출, 벌주기나 조선식의 애정 등의 행동을 보이며, 자녀들은 애정의 요구, 주의를 끌려는 행동, 반항, 공격, 거짓말, 도둑질, 발달지체, 신경증적 경향과 같은 문제 행동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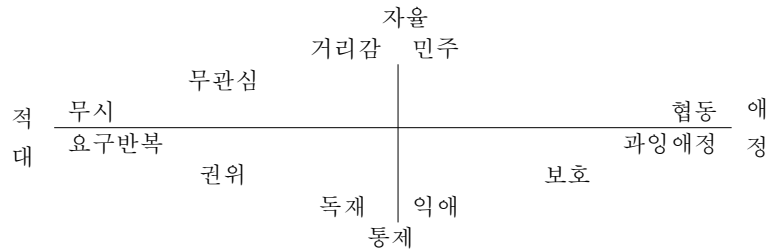
셋째, 지배형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예의가 바른 대신 반항적이거나 수동적이며 의존적이다. 또한 투쟁적, 불안 행동이 많으며 자립성,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복종형의 부모는 맹목적이고 익애적이며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그로 인해 특유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정서적인 발달에 방해를 받아 언제나 유아적 상태로 머물게 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며 지배적이고 자기 황홀감이 짙으며 공격적, 반항적, 비사교적, 억지, 의존성 등이 많이 나타난다.

1)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쏟는 유형을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2011.

이와 같이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만 설명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지숙, 2011).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신생아 시기부터 초기 청소년 시기까지의 발달과 함께 장기적으로 연구하였다. 애정-적대, 자율-통제라는 2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한 가설적 원형모형은 다음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Schaefer의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

Schaefer(1959)의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은숙, 2007 재인용).

첫째, 애정-자율적 태도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부모가 애정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며 자유, 허용적, 민주적, 협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애정-통제적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태도이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의 행동범주를 결정하고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며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새로운 습득의 기회를 단절시킨다.

셋째, 적대-통제적 태도는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으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처벌 또는 심리적인 체벌을 하는 것으로서 권위적, 독재적, 요구 반복적,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

넷째, 적대-자율적인 태도는 방임적인 양육태도로서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동시에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둔다.

국내 연구에서 오기선(1965)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 지배, 복종, 모순, 불일치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김기정(1984)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의 세 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박성연과 이숙(1990)은 한

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으로 온정, 거부 그리고 권위주의로 구분하였다. 정원식(1979)은 가정환경을 지위환경, 구조 환경, 과정환경의 측면에서 분류하고 가정의 과정환경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의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고 있다(박지숙, 2011).

3.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 관련 선행연구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많은 학자들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환경적 요인들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데,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에서는 중독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나쁠 경우 자녀의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 가정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이란 시기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고 있어 부모의 부당한 압력이나 거부, 무관심에 의해 좌절과 심리적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장재홍, 2004).

Young(1996)은 청소년 중독자들은 부모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에 간혀 있는 느낌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자들은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탈출구로서 인터넷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문은숙, 2006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 이시형(2000)은 인터넷 중독과 가족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연구한 결과,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방식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안석(2000)은 평소 자녀에 대한 관심, 믿음, 지지 및 자녀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인터넷 이용에 관한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적절히 수용될 때 음란 표현물이나 음란채팅에 몰입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이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남자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을 연구한 윤지영(2001)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적대감, 무관심, 무시 등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연구한 정경란(2001)은 자녀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가족간의 불화가 심할수록

자녀의 인터넷 중독 위험성은 증가한다고 했다. 김선우(2002)는 부모의 학생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도 낮으며 부모의 간섭은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중독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4. 부모양육태도와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

국내에서 부모관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가치관, 문화, 정체성 등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족이며,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알게 모르게 주어진 권력과 권위에 대한 생각과 태도, 대응전략 등을 소통하고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영양 변수로 보고 분석되고 있다(장현주, 1998; 송미숙, 2004).

과잉통제나 과잉보호, 무관심 등과 같은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정적 자기 지각과 타인 지각, 충동성, 공격성, 혹은 폭력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수화, 1999).

부모는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폭력의 가해행동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게 하고(김석진, 1999), 민주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수용하고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어 자녀의 폭력행동을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비행이나 폭력행동은 감소하게 된다(김준호, 1997a; 이문자, 2003).

황혜정(1997)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라고 응답한 아동에게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양혜진(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분노가 높았고, 특히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청소년의 만성적인 폭력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인 태도, 과잉보호, 무관심, 비 일

관적인 부모양육태도를 가진 가정에서 주로 발견된다(노충래·이신옥, 2003; Loeber, 1990).

한편 Feinberg(2000)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인가 거부적인가 하는 것은 부모의 판단보다 자녀의 주관적 경험이나 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차이가 자녀의 부적응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기준에서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이명자, 2009 재인용).

이처럼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제4절 문제행동

1. 인터넷 중독

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중독이란 절제할 수 없는 병적인 의존상태로, 어떤 특정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자신 스스로 쾌락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중독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내성과 금단증상이 생기게 되며, 중독을 중단하게 되면 심한 감정적, 심리적, 정신적 반응을 초래하고 인간의 정상적인 습관이나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된다. 중독자들은 이러한 병리적 현상 때문에 다시 중독에 몰입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각, 각성, 사고력, 주의력, 대인관계, 판단력 등의 장애에 처하게 된다.

중독은 물질만이 아니라 행위에도 해당된다. 즉, ‘중독’이란 약물, 알코올, 니코틴 등의 물질에 의한 중독과 도박 등 충동조절장애와 더불어 쇼핑, 인터넷, 운동, 성행위 등 특정행동에 의한 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일컫는 인터넷 중독은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 IAD)라는 용어는 Goldberg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는 인터넷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해 개인이 통제력을 잃어 생활이나 기능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박영희, 2002 재인용).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약물, 알코올, 또는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라고 하였다. 즉, 인터넷 사용(혹은 활동)에 탐닉되어 이에 대한 의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 등과 같은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는 중독 상태를 말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정상 생활이 방해받는 중독 상태에 빠지지 않는 않지만, 다른 과정 중독과 같이 인터넷에 대해서도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Alex와 Jeffrey(2001)은 인터넷 중독을 인지, 행동, 정서의 손상으로 인해 부적응적 인터넷 이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인터넷 행동 의존(Internet behavior dependence)'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였고, 인터넷 행동의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불만족감을 보상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과다사용에 이르는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재인용).

2) 인터넷 중독의 원인

인터넷 중독의 원인에 관하여 학자마다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Greenfield(1999)는 다른 인터넷 이용자와의 친밀감, 인터넷 이용을 중단하기 힘든 탈 억제, 현실과의 경계상실, 인터넷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시간 개념의 상실, 통제력의 상실 등을 원인으로 보았다. 한편 King(1996)은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과 쉽게 만나고, 타인의 상호작용이나 생각 그리고 감정을 쉽게 훑쳐 보며, 극히 사적인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는 기능이 강화인자로 작용하여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와 비교할 때, Young(2000)은 사회적 지지와 성적 만족, 새로운 인격창출, 숨은 성격의 발현, 통제력과 영향력 등을 중독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들은 인터넷 자체요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가족·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재인용).

(1) 인터넷 자체요인

① 익명성(Anonymity)

익명성은 Young(1996)에 의해 제시된 요인이다. 이것은 현실사회에서는 사회

적인 자신의 위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드러낼 수 있음을 말한다. 현실세계에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가상공간에서의 게임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게임이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게임방을 나와 버리는 무례한 행동들을 한다(육원희, 2003). 즉 인터넷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둔 생각들을 솔직하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실제모습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창조해낸 각자의 모습이나 이미지, 즉 사용자의 심리적인 모습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게 된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또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상조작행동을 하게 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인터넷을 통한 대인관계교류의 특징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익명성(Anonymity)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억압해제 효과(disinhibiting effect)가 있으며 정서적 투사효과(emotionally-laden projectioneffect)가 있다.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독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곽보람, 2004).

② 소속감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최첨단의 정보교류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교체하고 사회관계를 맺는데 더 관심이 많아서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활동을 하는 하나의 가상사회를 형성하게 된다(Rheingold, 1992). 또, 하루 방문자수와 가입 회원 수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포털사이트들이 대부분 온라인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들 커뮤니티에 가입한 회원 수가 엄청나다라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한다(최은정, 2005).

③ 의사소통장애

인터넷은 현실세계에서의 의사소통에서 비효율성, 혹은 실패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보상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메일, 채팅, 게시판 글 올리기와 같은 인터넷 사용은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고 이에 중독되는 것은 비현실적 의사소통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육원희, 2003).

④ 가상적 대인관계

모든 인간은 건강한 생존에 필요한 정서적 지지 즉, 관심, 배려, 애정, 존경, 인정, 소속감 등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다. 초기의 인터넷 세계에서 사람과의 교류는 매우 단순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인터넷상의 상호교류는 인간 대 컴퓨터를 넘어선, 인간 대 인간의 교류라고 할 수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인터넷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관계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은 이런 관계를 통해 과잉된 개인적 효과를 갖게 된다.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과잉된 개인적 상태로 지내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근대화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이를 통해 자기와 타인의 관계가 이전보다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된다. 이런 과잉된 개인적 상태의 추구가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된다(육원희, 2003).

(2) 사회·환경적 요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설치된 초고속 통신망과 곳곳에 개설된 PC방, 또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넷북이나 스마트폰 등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운 환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자기조절과 통제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조춘범, 2001).

이처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유해한 환경에 무한정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으며 여가활동이 제한된 환경에서 자라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수가 많다는 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에의 노출을 막는 사회적 정치와 교육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권정혜, 2003).

(3) 개인적 요인

① 정서적 특성

㉠ 우울

Young(1996)은 이미 심각한 정서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낮은 자존감의 사용자, 다른 물질이나 행위 중독의 유경험자, 자신의 정체성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에 취약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결과로 현실의 대인관계가 축소되고 컴퓨터 사용시간이 늘수록 사회적 고립/폐쇄의 정도 늘어나며, 이에 대한 결과로 우울증세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우울이다(Gunn, 1998; Krout 외, 1998; 윤재희, 1998; 김종범, 2000; 황상민, 2001; 채규만 외, 2001). 이러한 상관관계는 중독자들이 현실의 대인관계에서 불만족, 소속감의 부재로 기인하여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울한 사용자가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한 결과로 우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지, 그 방향성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 사회불안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대하기를 어려워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경우, 불안, 신경증,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등의 불안 반응을 보인다.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회피나 부인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심한 중독에 빠질 수 있다(채규만 외, 2001).

신의진(2005)의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중학교 2학년생 495명을 대상으로 게임 중독과 정신건강의 관계성 여부를 연구한 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학생들이 불안감이 더 높고 이에 따라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사회불안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통신 중독률을 나타냈다.

㉢ 충동성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요인이 충동성이라 할 수 있다. 충동성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Eysenck & Eysenck(1985)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혹은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성격 특질로 보고, Gray(1987)는 위험,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차원이라 보았으며, Barratt & Patton(1983)은 반응 시간이 너무 빨라서 행동에 대한 제지가 안되며, 미래에 대한 예측,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계획능력의 결여로 보았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재인용).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이 알콜중독이나 도박중독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충동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보았다. 게임을 사용하는 아동들에게 충동성향은 매우 일반적이며(김춘경, 1991 재인용), 중독적으로 게임을 사용하는 집단에서 충동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소영, 2000). 더불어 자기통제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기통제감과 자기통제 능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률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정민희, 2003; 장재홍 외, 2003; Shapira 외, 1999).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중독은 강박장애보다 충동장애와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자기조절력이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시기에는 자기조절력을 강조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이며, 부모, 교사 등의 교육, 감독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권희경, 권정혜, 2002).

3) 인터넷 중독의 유형과 성향

Young(1998)은 인터넷 중독에 광범위한 행동과 충동-통제 문제를 포함시키면서 인터넷 중독을 5가지 중독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사이버섹스중독, 가상관계중독, 충동적 인터넷 사용(도박, 쇼핑), 정보과부하, 컴퓨터 중독으로 구분하였다.

사이버섹스중독(Cybersexual Addiction)은 사이버 포르노를 보고 성인 채팅방을 통해 사이버 섹스에 몰입하고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상관계중독(Cyber-relationship Addiction)은 실생활의 친구나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채팅방, MUDs, 뉴스그룹 등의 온라인상 친구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과도한 몰입을 하게 되는 온라인 우정이 실제 생활에서의 친구와 가족을 대치하게 되며, 사이버 관계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충동적 인터넷 사용(Net Compulsions)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는 중독의 하위형태로 충동적인 온라인 도박, 온라인 경매 중독, 강박적인 온라인 거래 등을 말

한다.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 load)는 충동적인 웹서핑과 자료조사에 중독 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중독(Computer Addiction)은 강박적인 컴퓨터 게임 놀이 나 컴퓨터 분야 프로그래밍 분야를 총칭하는 하위유형으로 대부분 남자·아동·청소년에게서 문제가 된다.

Suler(1996)는 모든 가상현실에 대한 중독을 두 가지 범주 즉, 사회적 형태와 비사회적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형태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몰입하고 그 외의 컴퓨터 이용에는 관심이 없으며, 비사회적 형태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게임, 일, 정보수립 또는 인터넷에서 무엇을 찾아다니는 일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들의 대인 관계를 위하여 가상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대부분의 인터넷 중독자들은 사회적 형태를 지닐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인터넷 중독의 기저에 흐르는 욕구는 대인 관계적이라고 보았다(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0 재인용). 한국 여성 민우회(2000)는 Young(2006)의 인터넷 중독척도 20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가상현실, 절제실패, 피해경험의 3가지 유형으로 중독유형을 분류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상현실지향형과 피해경험형의 경우에는 교우관계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가지 유형 모두 음란물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²⁾

한편 어기준(2000)은 주로 이용하는 활동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중독의 유형을 게임중독, 통신 중독, 음란물 중독으로 나누었다. 통신 중독은 채팅, 대화방, 동호회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심리적 안정감과 익명성 보장을 통한 새로운 상대를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중독에 빠져들게 되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채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임 중독은 롤 플레이, 시뮬레이션이나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다양한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많은 수의 성인들도 게임에 빠져드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음란물 중독은 인터넷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음란 사진, 동영상, 소셜 등을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행동을 말한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통제를 피하면서 쉽게 많은량의 고화질 음란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상의 3가지 인터넷 이용 유형

2) 윤영민(2003).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행동. 정보통신윤리 43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p24.

중에서 게시판 이용이나 의사소통 쾌락을 즐기는 통신 중독 집단이 높은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갖는다는 연구도 있다.

윤영민(2000)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정보보다 통신용도로, 통신보다 오락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중독은 성, 나이, 성격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용유형에 걸쳐서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위험이 큰 집단은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고 자기 통제가 부족하거나 중독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0).

2. 학교 폭력 가해경험

1) 학교폭력의 정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단순히 탈선의 수준에서 벗어나 점차 조직화, 범죄화 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폭력이 '학교'라는 공간적 개념과 결합된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³⁾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유사한 용어들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로 인해 학교폭력의 개념정의를 단순하지만은 않다.⁴⁾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구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Olweus(1993)가 정리한 것으로 어떤 학생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행동(negative action)을 경험하는 것을 학교폭력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행동은 밀거나 때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폭력이나 말로 위협하고 놀리는 언어적 폭력행위 같이 괴롭힘과 상처를 가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비록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지만 인상을 찌푸리거나 고의적으로 한 학생을 집단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들

3) 학교폭력은 1995년 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전신인 '학교폭력예방시민모임'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나, 당시 학교 관계자의 심한 반발을 받았다. 학교 측은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행해진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1997년 학생들의 폭력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폭력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급기야 정부기관 및 매스컴들이 학교폭력을 공식적인 용어로 쓰기 시작했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자료, 학교폭력이란 참조, <http://www.jikim.net>.

4) 한국청소년상담원(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방안. p. 11.

도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금자·이경준(1998)은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발생장소 등에 있어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행위로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조성호(2000)는 학교 내·외에서 서로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생들간의 신체·물리적, 심리적 및 언어적 공격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남진열·원명순(2001)은 집단 괴롭힘, 집단 따돌림, 왕따, 이지메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학교 내 외의 환경에서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상호간의 힘의 불균형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공격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금품갈취, 폭력이나 협박(괴롭힘)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다.

2) 학교폭력 가해유형

(1) 신체·물리적 폭력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폭력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폭력은 개인이나 혹은 집단적으로 타인에게 신체를 직접 사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수반하게 하는 행위이며 물리적 폭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흉기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고통을 수반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구타한다거나, 지나가는 친구의 눈짓이나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그냥 심심풀이 식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같은 신체·물리적 폭력은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된다. 폭행이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체·물리적 폭력은 다른 유형의 폭력들과 달리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심각한 싸움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소년기의 정서가 질풍노도와 같이 즉흥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힘이 약하여 이런 행위가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2) 언어·정서적 폭력

언어·정서적 폭력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폭력의 종류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정서에 타격을 주는 폭력을 말한다. 시비를 걸거나 헐뜯는 행위, 심한 욕설, 놀림이나 조롱, 비난, 비행 들추기, 헐뜯기, 따돌리는 말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정서적 폭력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나 침을 뱉거나 후배로 하여금 욕설이나 쌍소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과 함께 자괴감을 일으키게 하며 심지어는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런 언어·정서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3) 금품갈취

금품갈취란 물질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돈이나 금품을 빼앗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다.

금품갈취는 90년대부터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주목받은 이후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신체적인 힘으로 누름으로써 가진 것을 빼앗고 여기서 일종의 쾌락과 만족감을 누리려는 부적응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결핍시키고 자신을 보충시켜 심리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보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주로 폭력서클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중 돈이 많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금품갈취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학교 간 폭력서클의 연합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 학교 교우 정보를 얻어서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이를 신고할 경우 보복행위가 뒤따르는 등 조직폭력배의 행위를 모방하여 일어나기도 한다(김형우, 2009).

또한 금품갈취는 한 학생에게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요구되거나 그 액수가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구나 일진 등 불량서클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에게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의 경우 그저 장난삼아 혹은 별 생각 없이 했다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금품갈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가해학생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성적폭력

성적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⁵⁾, 성희롱⁶⁾,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즉, 상대방이 말이나 몸짓 등으로 거부 표시를 분명히 하는데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성행동을 취하는 것이 성폭력이다(신지원, 20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에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 어린이 성추행, 윤락행위 강요, 음란물 보이기 및 음란물 제작에 이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희롱,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치한 행위도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⁷⁾

5)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하거나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www.naver.com).

6)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www.naver.com).

7) 주희중 외(1998),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 pp.167-171.

현재 청소년들은 음란물과 성이 상품화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성폭력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폭력범죄의 발생원인은 청소년기의 강렬한 성충동과 호기심을 부추기는 음란잡지, 만화, 영화, 비디오 등 음란물의 범람과 성을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화시키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는 성교육 부재를 볼 수 있다(구희주, 2010).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성교육을 불충분하게 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거나 성지식을 얻는 경우는 친구나 학교로부터의 성교육에 비해 극히 적고, 특히 아버지로부터의 성교육은 더운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친구간의 관계나 영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생 중 또래에 대한 동조경향이 가장 높은 청소년기에는 성행동 뿐 아니라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또한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다.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성사회화 집단으로서 상호간의 성지식과 성 태도를 교환한다(김혜원·이해경, 2002).

(5) 괴롭힘

괴롭힘이란 일반적으로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과 구분된다. 물론 욕설이나 신체적인 폭력등도 괴롭힘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특별히 심리적인 억압이나 강제로 노무를 제공케 하려는 특정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⁸⁾로 상대방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숙제 등을 강제로 시키는 등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성호(2005)는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함께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말로써 상대방을 놀리거나 비꼬는 행위, 욕설을 하거나 단점을 말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괴롭히는 폭력을 말한다. 언어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소 미묘한 점이 있어서 폭력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심리적 폭력은 학생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형태의 폭력이다. 여기에는 거부하기, 겁주기, 무시하기, 따돌리기, 그리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피해 상대방이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자아개념이 위축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8) 교육인적자원부(2005). 학교폭력유형별 대처 사례집.

신영희(2000)는 ‘학교 내 동료집단 중 다수의 집단인 가해자와 소수의 개인 피해자 사이에 힘을 매개로 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소외, 모함, 놀림, 괴롭힘 등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하거나 당함으로써 나타나는 일탈행위’라고 규정했으며, 오형만(2001)은 괴롭힘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 숙제시키기, 심부름 시키기, 가방 들어주기, 불량서클이나 폭력 조직 가입 강요 등에 관련된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집단 역할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죄의식을 합리화 내지 타인에게 투사시키기 위해 집단 방어의 한 형태로 희생양을 삼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괴롭힘은 학교 내에서 주로 나타나는 폭력행위로 같은 반 학생에 의해 자행되다보니 지속성을 갖게 되기가 쉽고 이렇다 할 구체적인 목적도 없고 없이 오직 약자를 괴롭히는 재미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그 가학성이 더욱 잔혹하다(안세진, 2007, 재인용).

(6) 집단 따돌림(왕따)

집단 따돌림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두 명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구타, 폭행, 소외, 심리적 배제 등을 포함하며, 힘의 불균형에 의한 대인관계가 존재한다(곽금주, 1999).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7)은 왕따를 학교폭력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행동’이라고 정의했으며 왕따(집단 따돌림)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대화거부, 모함, 약점 들추기, 공개적 비난, 시비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치메보다 폭력적 행위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정의를 종합하면 왕따의 개념 중 집단 따돌림은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또는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자를 대상으로 여럿이 함께, 또는 개인이 돌아가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는 행위이다(도기봉, 2007; 장금순, 2005; 박성도, 2001).

3)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적극적 가해자와 소극적 가해자로 구분할 수 있다. 주도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행동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해하거나 가해하도록 하는 사람은 적극적 가해자 또는 전형적 가해자이며, 소극적 가해자는 보통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학교폭력에 참여하는 학생으로서, 추종자로도 불리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특성인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형적인 가해자와 함께 학교폭력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보통 정도의 인기가 있으며, 주로 가해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2-3명의 작은 집단으로 구성되어진다(남진열·원명순 2001).

가해자들의 특성은 폭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충동적이며(Stephenson & Smith, 1989), 자존심은 낮지 않고, 외향적이며 자신만만하고 또래 집단 내에서 지배적이고 강렬한 것을 이상형으로 삼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Smith & Sharp, 1994).

또한 힘이 세며 싸움을 잘하고 강한 충동성 및 공격성, 높은 지배욕과 낮은 공감성을 지니고 있다(Marano, 1995; Olweus, 1980). 힘과 지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 통제하는 것을 즐기며, 남을 정복하길 좋아하고(Olweus, 1994),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중시하며 타인에게 주는 고통이나 타인이 자신을 싫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폭력이 가시적인 보상을 가져다주고 자신에 대한 다른 학생의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하며,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은 공격적인 행동의 결과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중시한다(Boldize & Perry, 1989).

또한 가정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증오성이 발달되어 있다. 그들의 감정과 충동성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는데서 만족감을 찾는 경향이 있다(Olweus, 1994; 임영식, 1999). 많은 가해자는 가정에서부터 피해자로 시작된다.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를 입고, 수치감을 느끼고, 통제되어지는 등의 좌절감이 흔히 깊은 분노의 감정이나 보복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

하여 다른 환경에서 폭력대상을 찾는 것이다(Hazler, 1996). 가해자는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의 도구화하는 특성이 있다. 즉, 가해자는 흔히 피해자에게 돈, 담배, 술, 그리고 다른 가치 있는 물건을 제공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남진열·원명순 2001).

가해자들은 삶이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조망능력이 부족하다. 이들은 장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폭력 결과가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Hazler, 1996; 임영식, 1999).

그 외에도 폭력매체를 선호하는 편이며, 비행친구가 많고, 비행경험이 많으며, 폭력피해경험도 많다(남진열·원명순 2001).

Olweus(1994)는 또래폭력 가해행동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고 했다.

첫째, 가해자들에게는 힘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있어 통제하는 것을 즐기며, 남을 정복하기를 좋아한다.

둘째, 그들의 가정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적개심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이와 관련된 감정과 충동들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폭력을 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 즉, 공격적인 행동은 많은 상황에서 권력형태의 보상을 받는다. 실제로 초등학교 시기의 가해학생들은 또래들 사이의 인기가 평균수준이거나 그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Olweus, 1994; Pulkkinen, 1992).

4)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요인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우선 생물학적 원인을 들 수 있는데, Grigsby와 Stevens(2000)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고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전두엽의 실행기능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언어적·신체적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폭력과 유사한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 역시

실행기능에 유의한 결함이 있으며, 이러한 뇌 기능의 이상은 과잉적인 행동경향과 낮은 주의력을 유발하여 결국 폭력적인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 행동이 뇌의 비정상적인 기능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임영식, 2007 재인용).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가장 빠른 신체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불안을 느낀다. 심리적으로는 자기의식의 출현으로 독립 욕구가 강해지는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만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정서불안을 느끼게 된다(주은희, 2002). 이러한 정서 불안은 정서장애로 이어져 반항적, 충동적, 파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분노의 표출방법으로 폭력행위를 한다(이금주·운명희, 2002).

또한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은 공격적 성격장애이다. 이들은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나 감정이 작동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한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홍봉선(1998)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오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자기 자신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무너진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의 하나로써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시형(1997)은 학교폭력은 자기 통제력의 결여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저질러지는 경향성이 높은 행동으로서 대체로 자신의 충동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순간적인 충동에 휩쓸려 분노가 표출되고, 힘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도 반성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며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공격적 충동을 그대로 표출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Rigby(1996)은 성격장애와 학교폭력간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해 청소년들은 일탈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으며, 피해 청소년들은 자기주장을 잘 내세우지 못하고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으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결국 자기 존중감의 저하 및 자기 비하, 욕구불만에 대한 인내심 결여, 열등감의 해소책,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결핍,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의 부족, 수용능력의 결핍, 정서불안, 폭력적인 성향과 공격성, 왜곡된 방식으로 우월감 추구 등의 행동이 청소년에게서 발견된다(김선형, 2005)

(2) 가정환경 요인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아이들의 성격, 지능, 정서, 신체 등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가장 원초적이며 중요한 공간이다. 가정은 청소년의 인격 발달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곳으로 청소년의 성격은 물론 가치관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인간성을 키우는 요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정옥, 1989). 따라서 부모의 무관심과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훈육으로 인해 가정의 본래의 참 기능을 잃고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 욕구가 가족관계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불안, 갈등을 겪게 되며, 자녀와의 대화가 적은 가정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할 가능성이 많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부폭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폭력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이 폭력의 학습장이 될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조춘범, 2005).

또한 가정의 주변 환경도 중요한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 혹은 범죄위험이 있는 이웃과 인접해 있는 것도 청소년 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Herrenkohletal, 2000). 또 부모의 실업, 가정 내 1인당 공간 소유 정도, 가정 내 교육을 위한 교구 및 재료의 부재 등이 학교폭력 발생과 관련이 있다(김준호, 1997).

(3) 학교환경요인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으로 아동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

회적 활동의 장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학교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정옥분,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는 대학 입시와 성적 향상의 교육적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인해 학교폭력, 자살, 학교 중퇴 등의 학생 문제는 물론 학교붕괴나 교실 파괴와 같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학교위기관리지원단, 2003)

즉, 학교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임에도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다 시험성적에 의한 획일화된 평가,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적절히 평가받지 못한다(이금주, 2002).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학교와 과밀한 학습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간관계는 형식적이며, 기계적일 수 밖에 없고, 정서 교육이나 생활교육이 제한적이다(주은희, 2002). 이러한 학교 분위기는 청소년들을 공부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개인주의, 요령주의, 출세주의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을 심어주어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울려져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곽은자, 1997).

임영식(1997)은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은 분노와 좌절을 느끼며 친구나 교사로부터 무시되기 때문에 이들은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이나 일탈적인 행동을 한다. 이들은 주변의 아이들로부터 소외되고 학교에 대해 애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비행 동료들과 어울리며 이들의 가치관과 행동경향을 수용하여 일탈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시기가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하도록 동조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폭력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함께 하도록 동조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폭력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배우고 모방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즉 학교주변의 비행 친구와 접촉이 많을 경우 가해 및 피해 가능성이 높다(박경숙, 1999).

또한 교사와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Ruytter(1985)의 연구에서 교사와 갈등적인 관계에 있고 교사에게 불만이 많을수록 폭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mith & Shu(2000)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은 학교가 자신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식, 2007 재인용).

교사들의 적절한 교수방법은 청소년들이 학습의욕과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의 일차적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청소년

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성남 외, 2003).

특히 교사의 학습지도 실제, 학급운영기술, 교수기술 등은 청소년의 공격행동 발달과 학교와의 유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김장영·양진건, 2000).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사는 학교에서 '의미있는 타자'로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의 기능을 한다. Agnew(1985)는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분노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분노 감정이 청소년 비행 중 폭력행위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Herschi(1969)는 교사에 대한 애착이 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질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재인용).

대부분 학교폭력의 피해는 학교에서 방임된 학생집단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Olweus, 1994). 교사에 의한 폭력노출이 증가할수록 가해와 피해경험이 증가하고, 교사의 지지가 많을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김혜원, 2000).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른 교사의 지지에서 정상집단에 비해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가해-피해자 집단은 교사로부터의 관심과 지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재, 박금주, 2000).

(4) 사회·환경요인

학교폭력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불합리한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묵인이나 관용적 태도, 매스미디어 등 대중매체의 폭력물, 사회전반의 유해 환경, 지역사회의 환경 등이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장인협 외, 2003).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정교육의 잘못 48.6%, 폭력적 대중매체의 범람 35.5%, 사회의 가치관 타락 19.6%, 처벌하는 법의 미약 18.5% 순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04).

Murray(1999)는 텔레비전, 만화,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대 보급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폭력 프로그램에 노출될 위험성은 더욱 커지며, 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호기심과 모방심리는 자극받고 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노출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수용하도록 학습시키며, 대중매체

를 통해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폭력적인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Verlinden et al, 2000; 임영식, 200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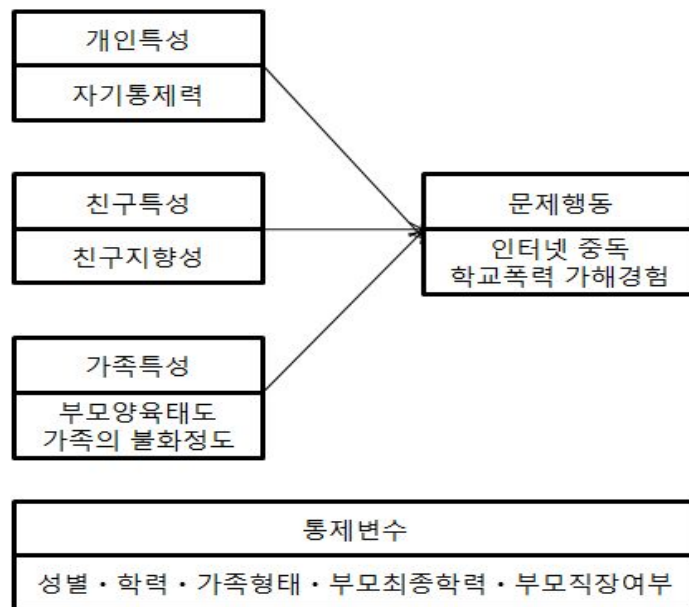
청소년의 성장에 부적절한 지역사회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퇴폐문화와 폭력문화의 방치, 그리고 성인중심의 유해환경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로 도시중심부에 소재한 학교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위험이 적다고 하는 소규모 지역사회환경에서 학교폭력을 조사한 연구(Hazler, Hoover, & Oliver, 1991)에서조차 남학생의 81% 그리고 여학생의 72% 즉, 네명 중 세명 이상이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zler, 1996, 남진열·원명순 2001).

또한 불합리한 폭력에 대한 사회의 묵인 및 관용적 태도가 학교폭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의 부정행동에 대해서 성인들은 관여를 하지 않으며,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들은 요즘의 청소년들에게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남진열·원명순 2001).

제 3장 모형설정 및 조사개요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응답자 특성변수로 성별, 학년, 가족형태,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최종학력, 부모님 직장여부를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님 양육태도, 가정불화를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문제행동의 하위변수인 인터넷 중독수준, 폭력경험을 선정하였다.



[그림 III-1] 연구 모형

제2절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님 양육태도, 가정불화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는 전제하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가해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주요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친구지향성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부모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가정불화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6> 친구지향성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7> 부모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8> 가정불화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주요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인터넷 중독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3절 조사개요

1. 개인특성 변수들

본 연구에서 개인특성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개인특성변수로 많이 사용된 성별,

학년, 가족형태, 부모학력수준, 부모직업유무를 개인특성 변수로 구성하였다.

2. 인터넷 중독 척도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에서 개인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개발한 유·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중 아동용(9세~12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는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때때로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표시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유·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의 신뢰도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폭력경험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김준호, 김선애(2003) 등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언어적 심리적 폭력, 신체적 물리적 폭력, 집단따돌림(왕따), 금품갈취,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의 유형을 각 6문항씩 가해·피해에 대한 경험의 유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친구지향성

초등학생들의 친구지향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남현미(1999)⁹⁾의 친구에 대한 지향성 척도를 참고로 본 연구에 맞게 척도를 총 12문항으로 재

9) 남현미(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친구지향성 척도는 김준호(1993), 김준호·김은경(1995)의 친구애착에 관한 척도와 진병재(1991)의 친구관계에의 참여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참고하여 친구에 대한 지향성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구성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을 부여 하였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12점에서 48점까지이며, 각 문항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즉 친구에 대한 지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친구에 대해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며 그들의 견해 및 행동에 더욱 많이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자기통제력

초등학생들의 자기통제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이영훈과 김성수(2005)가 개발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endall과 Wilcox(1979)가 개발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송원영(1999)이 예비조사를 통해 21문항으로 수정하였고, 다시 이영훈과 김성수(2005)가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21문항 중 부정문항으로 구성된 9개의 문항(‘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끝 잘 잊어버린다.’ ‘나는 누군가가 질책하면 아무 변명이나 생각해서 둘러대곤 한다.’, ‘나는 실수를 자주하는 편이다.’, ‘나는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빼먹을 때가 있다.’, ‘나는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에 정신을 팔곤 한다.’ 등)으로 축소한 것이다. 각 문항의 측정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남진열, 2009). 이영훈과 김성수(2005)가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는 .77, 남진열(200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87로 나타났다.

6.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한 척도를 총 7문항으로 ‘장점을 개발’ ‘자식의 생각에 대한 절대적지지’, ‘이해심’ ‘후원자의 역할’ 등을 제시하여 그 각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기재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해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93으로 나타났다.

7. 가족의 불화정도

가족의 불화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남현미(1999)의 가족 내 불화정도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불화정도에 관한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가족 내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분위기와 부모간, 형제자매간 갈등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되어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불화정도는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해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하였다. 척도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며, 가족의 불화 정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에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부모간 혹은 형제자매간 갈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불화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80으로 나타났다.

제4절 측정변수의 신뢰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법의 크론바하알파계수(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각 조사도구의 신뢰도

	문항수	Cronbach’s α
인터넷 중독	20	.90

학교폭력경험	12	.75
친구지향성	12	.86
자기통제력	9	.87
부모양육태도	7	.93
가족불화정도	12	.80

제5절 자료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정확하게 된 설문지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키고 총 325부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시켰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coding)과 오류 검토작업을 실시한 후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과 T-검정, 분산분석(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용된 조사도구의 신뢰도검사를 통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제 4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표본자료의 특성

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325명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와 같다. 성별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153명(47.1%), 여성 172명(52.9%)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학년 특성은 3학년 32명(9.8%), 4학년 104명(32%), 5학년 85명(26.2%), 6학년 104명(32%)로 응답되었다. 가족형태 특성은 부모님 두분 다 계신다 228명(70.2%), 부모님 한분만 계신다 75명(23.1%), 기타 22명(6.8%)으로 응답되었다. 아버지 최종학력 특성 부문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명(16.2%), 대학교 졸업 76명(23.4%), 대학원 졸업 27명(8.3%), 모름 169명(52%)으로 응답되었으며, 어머니 최종학력 특성 부문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79명(24.3%), 대학교 졸업 63명(19.4%), 대학원 졸업 23명(7.1%), 모름 160명(49.2%)으로 응답되었다. 부모님 직장여부 특성 부문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을 다니신다 187명(57.5%), 아버지만 직장을 다니신다 74명(22.8%), 어머니만 직장을 다니신다 58명(17.8%),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이 없다 6명(1.8%)로 응답되었다.

<표 IV-1>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3	47.1
	여성	172	52.9
	합계	325	100.0
학년	3학년	32	9.8
	4학년	104	32.0
	5학년	85	26.2
	6학년	104	32.0
	합계	325	100.0

가족형태	부모님 두분 다 계신다	228	70.2
	부모님이 한분만 계신다	75	23.1
	기타	22	6.8
	합계	325	100.0
아버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	16.2
	대학교 졸업	76	23.4
	대학원 졸업	27	8.3
	모름	169	52.0
	합계	325	100.0
어머니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9	24.3
	대학교 졸업	63	19.4
	대학원 졸업	23	7.1
	모름	160	49.2
	합계	325	100.0
부모 직장 여부	아버지,어머니 모두 직장을 다니신다	187	57.5
	아버지만 직장을 다니신다	74	22.8
	어머니만 직장을 다니신다	58	17.8
	아버지,어머니 모두 직장이 없다	6	1.8
	합계	325	100.0

2. 각 변인별 기술통계

<표 IV-2>에서는 인터넷 사용수준, 폭력 피해경험, 폭력 가해경험, 친구와의 관계, 자기 통제력, 양육태도(아버지), 양육태도(어머니), 가정불화정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의 변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수준이 평균 1.36(표준편차: .42)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경험 수준은 평균 1.12(표준편차: .20)로 나타났으며, 폭력 가해 경험은 평균 1.09(표준편차: .18)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 수준은 평균 2.31(표준편차: .60)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 수준은 평균 1.87(표준편차: .63)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수준은 평균 3.49(표준편차: 1.06)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 수준은 평균 3.69(표준편차: 1.01)로 나타났다. 가정불화정도 수준은 평균 1.97(표준편차: .65)로 나타났다.

<표 IV-2> 각 변인별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사용수준	325	1.00	3.05	1.36	.42
폭력피해경험	325	1.00	2.00	1.12	.20
폭력가해경험	325	1.00	2.00	1.09	.18
친구와의관계	325	1.00	4.00	2.31	.60
자기통제력	325	1.00	4.00	1.87	.63
양육태도(아버지)	325	1.00	5.00	3.49	1.06
양육태도(어머니)	325	1.00	5.00	3.69	1.01
가정불화정도	325	1.00	4.17	1.97	.65

3. 인터넷 이용관련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325명 대상자의 인터넷 최초 이용 시기 특성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124명(38.2%), 1학년때 88명(27.1%), 2학년때 55명(16.9%), 3학년때 29명(8.9%), 4학년때 17명(5.2%), 5학년때 6명(1.8%), 6학년때 2명(0.6%), 해본적 없다 4명(1.2%)으로 응답되었으며, 인터넷 이용빈도 특성은 거의 하지 않는다 87명(26.8%), 일주일에 하루정도 51명(15.7%), 일주일에 2~3일 정도 82명(25.2%), 일주일에 4~5일 정도 34명(10.5%), 일주일에 5~6일 정도 22명(6.8%), 거의 매일한다 49명(15.1%)으로 응답되었다.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특성은 30분미만 91명(28%), 30분~1시간 미만 100명(30.8%), 1시간~1시간 30분 미만 67명(20.6%), 1시간 30분~2시간 미만 34명(10.5%), 2시간~3시간 미만 21명(6.5%), 3시간 이상 12명(3.7%)으로 응답되었으며, 인터넷 이용장소 특성은 집 254명(78.2%), 학교 21명(6.5%), pc방 24명(7.4%), 공부방 및 학원 18명(5.5%), 기타 8명(2.5%)으로 응답되었다. 인터넷 서비스 유형 특성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 29명(8.9%), 인터넷 게임 158명(48.6%), 정보검색 40명(12.3%), 메신저, 채팅 20명(6.2%), 미니홈피 관리 29명(8.9%), 다운로드 8명(2.5%), 기타 41명(12.6%)으로 응답되었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욕구 특성은 하고싶지 않다 55명(16.9%), 일주일에 하루정도 81명(24.9%), 일주일에 2~3일정도 93명(28.6%), 일주일에 4~5일정도 34명(10.5%), 일주일에 5~6일정도 12명(3.7%), 거의 매일 50명(15.4%)으로 응답되었다.

<표 IV-3> 인터넷 이용관련 특성

구분	특성	빈도(명)	비율(%)
인터넷 최초 이용 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124	38.2
	1학년때	88	27.1
	2학년때	55	16.9
	3학년때	29	8.9
	4학년때	17	5.2
	5학년때	6	1.8
	6학년때	2	.6
	해본 적 없다	4	1.2
	합계	325	100.0
인터넷 이용 빈도	거의 하지 않는다	87	26.8
	일주일에 하루정도	51	15.7
	일주일에 2~3일 정도	82	25.2
	일주일에 4~5일 정도	34	10.5
	일주일에 5~6일 정도	22	6.8
	거의 매일한다	49	15.1
	합계	325	100.0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30분 미만	91	28.0
	30분~1시간 미만	100	30.8
	1시간~1시간 30분 미만	67	20.6
	1시간 30분~2시간 미만	34	10.5
	2시간~3시간 미만	21	6.5
	3시간 이상	12	3.7
	합계	325	100.0
인터넷 이용 장소	집	254	78.2
	학교	21	6.5
	PC방	24	7.4
	공부방 및 학원	18	5.5
	기타	8	2.5
	합계	325	100.0
인터넷 서비스 유형	인터넷 동영상 강의	29	8.9
	인터넷 게임	158	48.6
	정보검색	40	12.3
	메신저, 채팅	20	6.2
	미니홈피 관리	29	8.9
	다운로드	8	2.5
	기타	41	12.6
	합계	325	100.0
인터넷 게임 이용 욕구	하고싶지 않다	55	16.9
	일주일에 하루정도	81	24.9
	일주일에 2~3일정도	93	28.6
	일주일에 4~5일정도	34	10.5
	일주일에 5~6일정도	12	3.7
	거의 매일	50	15.4
	합계	325	100.0

제2절 응답자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차이

1)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인터넷 중독 수준에 대한 성별간의 인식 차이를 t-tes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4>과 같다.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남성 1.47(표준편차 .49)로 여성 1.27(표준편차 .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구분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인터넷 중독	남성	153	1.47	.49	4.25	.000***
	여성	172	1.27	.32		

주1) ***p <0.05

2) 학년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인터넷 중독 수준에 대한 학년간의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5>과 같다.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학년 특성 차이는 6학년 1.43(표준편차 .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학년 1.34(표준편차 .39), 3학년 1.34(표준편차 .47), 4학년 1.33(표준편차 .43)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학년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구분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인터넷 중독	3학년	32	1.34	.47	1.103	.348
	4학년	104	1.33	.43		
	5학년	85	1.34	.39		
	6학년	104	1.43	.41		

3) 가족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인터넷 중독 수준에 대해 가족형태에 따른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가족형태 특성 차이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신다. 1.37(표준편차 .4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님 한분만 계신다. 1.36(표준편차 .42), 기타 1.33(표준편차 .41)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가족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구분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인터넷 중독	부모님 두분 다 계신다	228	1.37	.42	.14	.869
	부모님이 한분만 계신다	75	1.36	.42		
	기 타	22	1.33	.41		

4) 아버지 학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인터넷 중독 수준에 대해 아버지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아버지 학력 특성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이하 1.51(표준편차 .56), 대학원 졸업 1.32(표준편차 .40), 대학교 졸업 1.29(표준편차 .36)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아버지 학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구분	아버지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인터넷 중독	고졸 이하	53	1.51	.56	3.12	.026
	대학교 졸업	76	1.29	.36		
	대학원 졸업	27	1.32	.40		
	모름	169	1.36	.39		

5) 어머니 학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인터넷 중독 수준에 대해 어머니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어머니 학력 특성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이하 1.46(표준편차 .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1.31(표준편차 .37), 대학원 졸업 1.25(표준편차

.34)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어머니 학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구분	아버지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인터넷 중독	고졸 이하	79	1.46	.50	2.26	.081
	대학교 졸업	63	1.31	.37		
	대학원 졸업	23	1.25	.34		
	모름	160	1.36	.40		

6) 부모님 직장여부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인터넷 중독 수준에 대해 부모님 직장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9>과 같다.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부모님 직장 여부 특성 차이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이 없다 1.45(표준편차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머니만 직장을 다니신다. 1.41(표준편차 .46), 아버지만 직장에 다니신다. 1.35(표준편차 .4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을 다니신다. 1.35(표준편차 .41)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부모님 직장여부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구분	부모님 직장여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인터넷 중독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을 다니신다	187	1.35	.41	.42	.738
	아버지만 직장을 다니신다	74	1.35	.42		
	어머니만 직장을 다니신다	58	1.41	.46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이 없다	6	1.45	.32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폭력가해 수준차이

1) 성별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폭력가해 경험에 대한 성별간의 인식 차이를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0>와 같다. 폭력가해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남성 1.11(표준편차 .19)로 여성

1.07(표준편차 .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도 더 넓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성별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구분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폭력가해	남성	153	1.11	.19	6.47	.011
	여성	172	1.07	.16		

2) 학년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폭력가해 경험에 대한 학년간의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폭력가해 경험에 따른 학년 특성 차이는 3학년 1.14(표준편차 .2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학년 1.13(표준편차 .21), 4학년 1.07(표준편차 .15), 5학년 1.05(표준편차 .14)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학년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차이

구분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폭력가해	3학년	32	1.14	.22	3.68	.012
	4학년	104	1.07	.15		
	5학년	85	1.05	.14		
	6학년	104	1.13	.21		

3) 가족 형태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폭력가해 경험에 대한 가족 형태간의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2>과 같다. 폭력가해 경험에 따른 가족형태 특성 차이는 부모님이 한분만 계신다 1.12(표준편차 .20), 부모님 두 분 다 계신다 1.08(표준편차 .16)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가족형태에 따른 폭력가해 차이

구분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폭력가해	부모님 두분 다 계신다	228	1.08	.16	1.43	.241
	부모님이 한분만 계신다	75	1.12	.20		
	기타	22	1.11	.24		

4) 아버지 학력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폭력가해 경험에 대해 아버지 학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폭력가해 경험에 따른 아버지 학력 특성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이하 1.11(표준편차 .21), 대학원 졸업 1.09(표준편차 .22), 대학교 졸업 1.06(표준편차 .11)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아버지 학력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구분	아버지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폭력가해	고졸 이하	53	1.11	.21	1.22	.303
	대학교 졸업	76	1.06	.11		
	대학원 졸업	27	1.09	.22		
	모름	169	1.10	.18		

5) 어머니 학력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폭력가해 경험에 대해 어머니 학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4>과 같다. 폭력가해 경험에 따른 어머니 학력 특성 차이는 대학원 졸업 1.13(표준편차 .25),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0(표준편차 .18), 대학교 졸업 1.05(표준편차 .11)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어머니 학력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구분	아버지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폭력가해	고졸 이하	79	1.10	.18	1.37	.253
	대학교 졸업	63	1.05	.11		
	대학원 졸업	23	1.13	.25		
	모름	160	1.09	.18		

6) 부모님 직장여부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폭력가해 경험에 대한 부모님 직장여부에 인식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5>과 같다. 폭력가해 경험에 따른 부모님 직장여부 특성 차이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이 없다 1.13(표준편차 .1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머니만 직장을 다니신다 1.13(표준편차 .23),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을 다니신다 1.09(표준편차 .16), 아버지만 직장을 다니신다 1.07(표준편차 .17)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부모님 직장 여부에 따른 폭력가해 차이

구분	부모님 직장여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p값
폭력가해	아버지,어머니 모두 직장을 다니신다	187	1.09	.16	1.17	.321
	아버지만 직장을 다니신다	74	1.07	.17		
	어머니만 직장을 다니신다	58	1.13	.23		
	아버지,어머니 모두 직장이 없다	6	1.14	.16		

제3절 변인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1. 자기 통제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자기 통제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6>와 같다. 자기 통제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자기 통제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구분	자기통제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인터넷 중독수준	자기통제력 높은집단	160	1.19	.23	-8.33	.000***
	자기통제력 낮은집단	165	1.54	.48		

주1) *** p <0.05

2. 친구 지향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친구지향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7>와 같다. 친구지향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친구 지향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구분	친구지향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인터넷 중독수준	친구지향성 높은집단	169	1.45	.35	-3.87	.002***
	친구지향성 낮은집단	156	1.27	.46		

주1) *** p <0.05

3.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8>와 같다.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부모양육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구분	부모양육태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인터넷 중독수준	권위적인 집단	153	1.42	.48	2.30	.001***
	옹호적인 집단	172	1.31	.35		

주1) *** p <0.05

4. 가정불화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가정불화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가정불화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가정불화에 따른 인터넷 중독수준 차이

구분	가정불화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인터넷 중독수준	가정불화 낮은집단	163	1.26	.31	-4.84	.000***
	가정불화 높은집단	162	1.47	.48		

주1)*** p <0.05

5. 자기 통제력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자기 통제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20>와 같다. 자기 통제력에 따른 폭력가해경험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자기 통제력에 따른 폭력경험 차이

구분	자기통제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폭력가해	자기통제력 낮은집단	160	1.05	.14	-3.84	.000***
	자기통제력 높은집단	165	1.13	.20		

주1)*** p <0.05

6. 친구지향성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친구지향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21>와 같다. 친구지향성에 따른 폭력가해경험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친구 지향성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구분	친구지향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폭력가해	친구지향성 낮은집단	156	1.07	.15	-2.51	.003***
	친구지향성 높은집단	169	1.12	.20		

주1)*** p <0.05

7. 부모님양육태도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부모님양육태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부모님 양육태도에 따른 폭력가해경험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구분	부모양육태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폭력가해	권위적인 집단	153	1.10	.18	.597	.434
	옹호적인 집단	172	1.09	.18		

8. 가정불화에 따른 폭력가해경험 차이

가정불화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23>와 같다. 가정불화에 따른 폭력가해경험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가정불화에 따른 폭력가해 경험 차이

구분	가정불화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폭력가해	가정불화 낮은집단	163	1.06	.14	-2.92	.000***
	가정불화 높은집단	162	1.12	.20		

주1) ***p <0.05

제4절 변인에 따른 문제행동과의 인과관계

1.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인터넷 중독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인터넷 중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표 IV-24>와 같다. 자기통제력, 가정불화가 인터넷 중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인터넷 중독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p값)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인터넷 중독	상수	.632	.138		4.57	.000		
	자기통제력	.244	.038	.369	6.48	.000***	.695	1.481
	친구지향성	.060	.036	.086	1.66	.097	.823	1.215
	부모양육태도	-.080	.025	-.068	-1.23	.220	.720	1.390
	가정불화	.126	.040	.194	3.18	.002***	.587	1.704
$R^2 = .300$, 수정된 $R^2 = .291$, $F = 34.211$, $P = .000$ ***								

주1) *** p < 0.05

2.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폭력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표 IV-25>와 같다. 자기통제력과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는 폭력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폭력가해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p값)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폭력가해	상수	.874	.067		12.99	.000		
	자기통제력	.039	.018	.138	2.12	.035	.675	1.481
	친구지향성	.026	.017	.087	1.48	.141	.823	1.215
	부모양육태도	.002	.012	.013	.21	.836	.720	1.390
	가정불화	.039	.019	.141	2.01	.045*	.587	1.704
$R^2 = .076$, 수정된 $R^2 = .065$, $F = 6.586$, $P = .000$ ***								

제5절 분석결과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

1. 분석결과의 함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특성이 문제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선행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접근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였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조사방법론의 원칙을 기준으로 조사도구를 선정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제주도내 초등 학교 3, 4, 5, 6학년 남·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과 t-검정, 분산분석(ANOVA),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 척도의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인터넷 중독 척도와 학교폭력 경험, 친구지향성, 자기통제력, 부모양육태도와 가정불화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의 검증에서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인터넷 중독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년과 가족형태, 아버지학력수준, 어머니 학력수준, 부모의 직장여부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가해수준은 성별과 학년, 가족형태, 아버지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 부모의 직장여부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검증에서는 '주요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는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 등 모든 변인이 인터넷 중독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폭력가해 경험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는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가정불화 등 각각의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검증에서는 ‘주요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 통제력과 가정불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 통제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폭력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 통제력과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는 폭력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6>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 설	채택여부
가설 1	1.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1-2.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	2. 주요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자기 통제력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2-2. 친구지향성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2-3. 부모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2-4. 가정불화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2-5.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2-6. 친구지향성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2-7. 부모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2-8. 가정불화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3	3. 주요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3-1.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인터넷 중독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가 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특성이 문제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 제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놀이 문화의 부재는 인터넷 문화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편의 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더욱 인터넷 문화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 등 청소년 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사용을 억제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게임관련 기업체와 연계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의 가해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학교 내 학생으로서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더욱 방황하게 된다. 또한 학교로 복귀하였을 때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또 비행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후속 조치로 지속적인 개인상담 및 개별면담을 통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청소년단체 및 상담기관 등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 상담적 개별접근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 진행될 때 부모교육에 대한 체제를 강화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코칭을 통해 가정 내 1차적인 안정망 구성을 형성하는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위주의 조치보다는 장기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서적 지원제도 기반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중독이 가정과 학교생활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2009)에서 발표한 「2009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이 2004년도 92,976명(3.6%), 2005년 86,014명(3.6%), 2006년 92,643명(3.9%), 2007년 116,135명(4.6%), 2008년 133,072명(4.9%)로 2004년과 2005년에 총 범죄대비 3.6%까지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는 4.9%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6년간 전체 청소년범죄에서 19세 소년의 범죄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16세 소년의 범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16세 소년의 범죄가 전체 청소년 범죄의 22.2%를 차지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지역 내 아동·청소년 범죄현황은 2007년 16건, 2008년 26건, 2009년 34건으로 3년간 112%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연령수준도 낮아지고 있으며 동기면에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특성이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가설 1>의 검증에서는 성별은 인터넷 중독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년과 가족형태, 아버지학력수준, 어머니 학력수준, 부모의 직장여부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가해수준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검증에서는 ‘주요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는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부모양육태도, 가정불화 등 모든 변인이 인터넷 중독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폭력가해 경험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는 자기통제력, 친구지향성, 가정불화 등 각각의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검증에서는 ‘주요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과 가정불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폭력가해 경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에 관한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치료 및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한 것으로 면접조사나 행동관찰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금주(2004). 컴퓨터 게임과 아동, 청소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제10권. pp.147-175.
- 곽보람(2003).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영길(2007).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희주(2011). 청소년의 학교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성,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범 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김선애(1997). 학교주변 폭력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화(2007).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연구: 또래집단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우(2009).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진열(2009).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pp121-140.
- 남현미(1999). 가족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현이(2008). 개인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란희(2004). 인터넷중독과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관련성.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 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서울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기준(1999). 컴퓨터와 야한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부모. 서울: 아세아 미디어.
- 여기준(2000). 청소년 PC중독의 유형과 문제점. 청소년의 PC중독.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육원희(2003). 인터넷 게임중독이 고교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민(2000). 인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 문제와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윤재희(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경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추진(2007). 초등학교 저학년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 유형에 따른 공격성과 자기 통제력에서의 차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지(2005). 학교폭력유형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향(1999). 학교교육의 방지와 정부의 대책,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200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해연(2001).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과 성격특성 변인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2004).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 중독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혁(2002). 학교폭력실태와 예방적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소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 제6권. pp. 21-45.
- 최혜진(2010).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또래관계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 의 관계.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유·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개발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 2009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인터넷 중독의 특성 분석연구 :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고도화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홍금자·이경준(1998). 학교폭력의 설정과 학교사회사업가의 개입. 학교사회사업, 한국학교사회산업학회.
- 홍성권(2004). 인문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기대수준·자기 통제력·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찬숙(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대인불안에 따른 컴퓨터 게임중독.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상민(2000) 사이버 공간의 심리와 교육활동의 변화. 교육마당 21. 4월호. pp.100-111.
- Davi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Goldberg, I.(1995). "IASG(Internet Addiction Support Group) Official Criteria."
- Suler, J.(1996). An interview by Morris Johnes from internet Australasia magazine. URL: www.rider.edu/users/suler/psycyber/psycyber/html
- Logue(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 Olweus, D.(1993).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 35, 1171-1190.

Suler, J.(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www1.rider.edu/~suler/psycyber/cybaddict.html>.

Young K. S. & Rogers, R.(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pp25-28.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1(3). pp.237-249.

Young K. S.(1999). Cyber-Disorders: The Mental Concern for the New Millenium. *Cyber-Psychology and Behavior*.3(5). pp.475-479.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Individual, Friends and Family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ju on Problematic Behavior

Boo, Hyeong Jo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individual, friends and family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ju on their problematic behavior. Korean youths are under great stress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s due to the education based on the college entrance exam, and despite the effort to prevent or treat or correct such problems, most students feel alienated and inferior. As a result, they show maladjustment problems that may lead to the drop-out from school or even to committing suicide. As such, problematic behavior of the youth is caused by various factors, signifying that it is a very difficult and complex issue to find the key to solving these problems. At the same time, existing measures to the problematic behavior of the youth have often been unrealistic or one-off attemp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ir parents, and the friendship is considered essential, and therefore, when they are not supported by parents and friends, they often fall into the Internet where they can easily and quickly receive others' care, support or courage. Also they are on the age where they are rapidly moving from the childhood to the adolescence period, and due to the variou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nges that occur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ey tend to experience anxiety, nervousness, confusion, stress, conflict, and uncertainty in identity. As such, they require special care and understanding in welfare aspects. Therefore, considering that self-control, friend-directivity, the parents' child-raising attitude, and family conflict affect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blematic behavior,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s for the difference in problematic behavior by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by sex whereas there was no difference by academic year, family type, the academic level of the father, the academic level of the mother, and whether the parents have a job or no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violence was no difference by sex and academic year, family type, the academic level of the father and mother, and whether the parents have a job.

Second, as for the difference in key variables by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key variables by self-control, friend directivity, parents' attitude toward raising children, and family conflict. As for the difference in key variables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 in doing violenc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variable by self-control, friend directivity, and family conflict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y the parents' attitude toward raising children. Third, the study found that self-control and family conflict influenced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was found to be most influential to these two variabl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preventive and correctiv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and doing school violence, and the next research should use the following methods. First, whil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violence among normal students, the next study should consider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Internet addiction treatment and school violence counseling program so that the youth's usage of the program should be accurately determined and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sufficiently understood before developing a program that can appropriately take measures to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violence. Second, while this study conducted a research on those who do school violence, the next study needs to conduct a research on victims of school violence. Third, whil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he next study should complement the methodology with various other assessment techniques, such as interviews and behavior observation.

Keywords: Self-control, friend directivity, parents' attitude toward raising children, family conflict, problematic behavior

ID□□□□□

제주지역 초등학생의 개인·친구·가족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의 개인·친구·가족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응답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정답이 없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성의껏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지도교수 : 남 진 열 교수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자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과정 부형주

연락처 : 010-5096-7797, ywcastar@naver.com

< 응답표기 요령 >

※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예) 1. 학생의 현재 학년은?

① 3학년() ② 4학년(V) ③ 5학년() ④ 6학년()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내가 가장 자유롭다				V	

인터넷 사용수준에 관한 사항

1. 다음은 인터넷 사용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숫자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1	2	3	4
2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1	2	3	4
3	인터넷을 하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4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1	2	3	4
5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1	2	3	4
6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1	2	3	4
7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1	2	3	4
8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1	2	3	4
9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1	2	3	4
10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1	2	3	4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1	2	3	4
12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1	2	3	4
13	실제생활에서보다 인터넷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1	2	3	4
14	실제생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1	2	3	4
15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1	2	3	4
16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1	2	3	4
17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1	2	3	4
18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	2	3	4
1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	2	3	4
20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	2	3	4

2. 학생은 인터넷을 언제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까?
 ___ 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___ ② 1학년때 ___ ③ 2학년때 ___ ④ 3학년때
 ___ ⑤ 4학년때 ___ ⑥ 5학년때 ___ ⑦ 6학년때 ___ ⑧ 해본 적 없다
3. 학생은 컴퓨터 인터넷 사용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___ ① 거의 하지 않는다 ___ ② 일주일에 하루정도 ___ ③ 일주일에 2-3일 정도
 ___ ④ 일주일에 4-5일 정도 ___ ⑤ 일주일에 5-6일 정도 ___ ⑥ 거의 매일한다
4. 학생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합니까?
 ___ ① 30분미만 ___ ② 30분-1시간미만 ___ ③ 1시간-1시간 30분미만
 ___ ④ 1시간 30분-2시간미만 ___ ⑤ 2시간-3시간미만 ___ ⑥ 3시간 이상
5. 학생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___ ① 집 ___ ② 학교 ___ ③ pc방 ___ ④ 공부방 및 학원 ___ ⑤ 기타
6. 아래의 보기 중 인터넷으로 주로 무엇을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 하나를 표시해 주세요
 ___ ① 인터넷 동영상상의 ___ ② 인터넷 게임 ___ ③ 정보검색
 ___ ④ 메신저·채팅 ___ ⑤ 미니홈피 관리 ___ ⑥ 다운로드
 ___ ⑦ 기타 ()
7. 학생은 인터넷 게임을 얼마나 자주 하고 싶습니까?
 ___ ① 하고 싶지 않다 ___ ② 일주일에 하루정도 ___ ③ 일주일에 2-3일 정도
 ___ ④ 일주일에 4-5일 정도 ___ ⑤ 일주일에 5-6일 정도 ___ ⑥ 거의 매일

폭력경험에 관한 사항

8. 다음은 학생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해 주세요.

번호	학교폭력의 피해경험	없다	있다
1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놀림, 욕설, 위협이나 협박 등을 당한 적이 있다.	1	2
2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주먹이나 발, 흉기 등으로 맞은 적이 있다.	1	2
3	다른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4	나는 돈이나 물품을 다른 학생에게 빼앗긴 적이 있다.	1	2
5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말이나 몸짓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6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욕설, 모욕, 협박 등을 받은 적이 있다.	1	2

9. 학생의 친한 친구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① 없다 ___② 1-2명 ___③ 3-4명 ___④ 5-6명 ___⑤ 7명 이상

10. 다음은 학생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폭력 가해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해 주세요.

번호	학교폭력의 가해경험	없다	있다
1	나는 다른 학생에게 놀림, 욕설, 위협이나 협박 등을 한 적이 있다.	1	2
2	나는 다른 학생에게 주먹이나 발, 흉기 등으로 때린 적이 있다.	1	2
3	나는 다른 학생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4	나는 다른 학생에게 돈이나 물품을 빼앗은 적이 있다.	1	2
5	나는 다른 학생에게 말이나 몸짓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	1	2
6	나는 다른 학생에게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욕설, 모욕이나 협박 등을 한 적이 있다.	1	2

11. 학생의 친한 친구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경험이 있는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① 없다 ___② 1~2명 ___③ 3~4명 ___④ 5~6명 ___⑤ 7명 이상

12. 다음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숫자에 ○표시 해 주세요.

번호	친구와의 관계(지향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를 위해서라면 타선행위나 내키지 않는 행동도 할 수 있다.	1	2	3	4
2	나는 나에게 대한 친구들의 평가를 중요시 한다.	1	2	3	4
3	가족보다는 친구들이 훨씬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	1	2	3	4
4	나는 친구들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 의논하겠다.	1	2	3	4

번호	친구지향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6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편안하고 즐겁다.	1	2	3	4
7	내가 도움을 청하면 친구들은 기꺼이 나를 도울 것이다.	1	2	3	4
8	친구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준다.	1	2	3	4
9	나는 친구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1	2	3	4
10	나는 친구들과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1	2	3	4
11	친구들이 나쁜 행동을 해도 나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1	2	3	4
12	나는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1	2	3	4

자기통제력에 관한 사항

13. 다음은 자기통제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숫자에 ○표시 해 주세요.

번호	자기통제력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야 할 일을 곧 잘 잊어버린다.	1	2	3	4
2	누군가가 질책하면 아무 변명이라도 생각해서 둘러대곤 한다.	1	2	3	4
3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다.	1	2	3	4
4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빼먹을 때가 있다.	1	2	3	4
5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1	2	3	4
6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다.	1	2	3	4
7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한 적이 있다.	1	2	3	4
8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에 정신을 팔곤 한다.	1	2	3	4
9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한다.	1	2	3	4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4.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숫자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표시 해 주세요.

번호	부모님의 양육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는 나의 장점을 찾아내어 말씀을 해 주신다	1	2	3	4	5
	어머니는 나의 장점을 찾아내어 말씀을 해 주신다	1	2	3	4	5
2	아버지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싫어도 도와주신다	1	2	3	4	5
	어머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싫어도 도와주신다	1	2	3	4	5
3	아버지는 내 일은 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도하신다	1	2	3	4	5
	어머니는 내 일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도하신다	1	2	3	4	5
4	아버지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어머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5	아버지는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신다	1	2	3	4	5
	어머니는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신다	1	2	3	4	5
6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주시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7	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시다	1	2	3	4	5
	어머니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시다	1	2	3	4	5

15. 다음은 학생의 가족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숫자에 ○표시 해 주세요.

번호	가정의 불화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가족은 일이 잘못될 때 서로를 탓한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한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서로 미워하는것 같다.	1	2	3	4	5

번호	가정의 불화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 가족은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고들 한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함께 집에 있거나 함께 외출하는 것을 꺼린다.	1	2	3	4	5
6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다.	1	2	3	4	5
7	남에게 집안 이야기를 하기가 창피하다.	1	2	3	4	5
8	부모님은 자주 싸우시는 편이다.	1	2	3	4	5
9	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좋으시다.	1	2	3	4	5
10	부모님은 화가 나서 서로 말씀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11	나와 형제자매들은 서로 때리며 싸우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12	우리 가족들은 각자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한다.	1	2	3	4	5

학생에 대한 일반적 사항

16. 학생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 ① 남성 ___ ② 여성

17. 학생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 ① 3학년 ___ ② 4학년 ___ ③ 5학년 ___ ④ 4학년

18. 학생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 ① 부모님 두 분 다 계신다. ___ ② 부모님이 한분만 계신다.
___ ③ 부모님은 안계시고 친척 또는 다른 양육자와 함께 산다.
___ ④ 기타()

19. 학생의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 ① 초등학교 졸업 ___ ② 중학교 졸업 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 ④ 대학교 졸업 ___ ⑤ 대학원 졸업 ___ ⑥ 모름

20. 학생의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 ① 초등학교 졸업 ___ ② 중학교 졸업 ___ ③ 고등학교 졸업
___ ④ 대학교 졸업 ___ ⑤ 대학원 졸업 ___ ⑥ 모름

21. 학생의 부모님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 ___ ①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을 다니신다 ___ ② 아버지만 직장을 다니신다
___ ③ 어머니만 직장을 다니신다 ___ ④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장이 없다

22. 학생의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잘하는 편 ___ ② 대체로 잘하는 편 ___ ③ 보통
___ ④ 못하는 편 ___ ⑤ 매우 못하는 편

23. 학생은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 ___ ① 매우 만족하는 편 ___ ② 대체로 만족하는 편 ___ ③ 보통
___ ④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편 ___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 편

끝까지 질문문항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